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상승 우려”

중국의 원자재 수입가격 인하효과 ... 원유가격 상승 부채질 가능성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및 구리 소비국이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으로 위안화 절상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각종 원자재의 중국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7월2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하루 전보다 1.52달러(2.7%) 오른 배럴당 58.65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시장의 구리 가격도 3.35센트(2.1%) 높은 파운드당 1.6035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가격 역시 1.1% 오른 톤당 1만4200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2/4분기에 연간 기준 9.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9%대의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고성장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시장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잡아 19개 원자재 가격으로 구성된 CRB지수는 3월 최근 2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7월7일에는 WTI 가격을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62.10달러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포르투갈 소재 원자재 전문 시장조사기관 ICSG는 2005년 들어 1-4월 중국의 구리 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LME에서 집계하는 세계 구리 재고량은 최근 31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시아 최대의 정유기업인 중국 Sinopec의 대변인은 위안화 절상에 대해 “원유를 미국 달러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ABN암로 런던지사의 닉 무어 애널리스트는 “중국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을 낮게 해주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중국의 원자재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7월21일 달러당 8.28위안이던 자국 통화가치를 8.11위안으로 2.1% 절상시켰다.

<화학저널 2005/07/25>